R&R 32(2023) 105-140 https://doi.org/10.36365/kukirs.2023..32.105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 관계연구

황병훈
(등불교회, 목사, 신약신학)

Ⅰ. 서론
Ⅱ.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Ⅲ.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하여
Ⅳ.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 관계 설정하기
Ⅴ. 결론

[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 생각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용법 가운데 세 번째 용법에 관한 것이다.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을 모든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내용을 정립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간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가?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한 각각의 신학적인 연구는 이미 진행되어 온 바가 있다. 교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그런 연구는 얼마든지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성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내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또 다른 신학적인 완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의 공헌을 하기에 충분하다. 본 연구는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정의보다는 필수 항목과 정의를 다룬 후에 둘의 상관성을 각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립하였다. 분석한 결과, 이 둘의 관계는 크게 공유적인 관계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믿음 안에 있는 참 신자에게만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서로의 관계를 대립적이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로 여길 수 없다.

키워드: 성도의 견인, 율법의 제3용법, 공유적 관계, 상호보완적 관계, 참 신자, 교회와 신앙

논문투고일 2023.07.30. / 심사완료일 2023.09.01. / 게재확정일 2023.09.05.

Ⅰ. 서론

1. 연구의 시작 동기

(1) 한국교회의 건전한 신앙적 방향 제시를 요하는 신앙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

본 논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건전한 신앙을 수호하고 보수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1)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볼 때 문제시되고 오해하는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1] 성도의 견인은 교회의 도덕적 부재와 방종의 원인으로 비난 받는 교리이기도 하다.[2] 혹은 이 교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실제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구원을 보장받기 위한 선행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견인 교리를 거부하고 역으로 성령이 우리의 순종적 행위에 의존하는 모순을 조성하며 성령 받음이라는 안전함을 보장 받기 위해 지속 반복적으로 토라에 순종하고 제의를 행한다는 유대교 신학자 헤셀의 논리를 연상하게 한다.[3] 이런 이유들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교회 성도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적극적으로는 이 교리를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는 빛바랜 이론으로 치부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견인 교리는 구원의 확신 및 신자들의 정체성과 연관된 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4] 조나단 에드워즈는 "견인은 구원에 부합하는 필수요건이며 우리 구원의 조건"이라 주장한다. 심지어 구원과 관련하여 "없으면 안 되는 것"이며

---

1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55), 160.

2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vol. 5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1), 475-476.

3 Abraham J. Heschel, *God in search of man: a philosophy of Judaism* (New York: Farrar, Straus&Chdahy, 1955), 344.

4 이효선, "성도의 견인교리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적용 연구", 「생명과 말씀」 제14권(2016), 99.

"구원에 수반되는 중요한 것"으로 견인의 중요성과 그 위치를 치켜세운다.[5] 어쩌면 견인 교리가 제대로 설교되지 않고 성도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는 것이 부족하여 교회 내에 이런 부정적 결과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지성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웰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복음주의 교회 내 신학적 부재현상이 이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6]

2) 율법 용법(제3용법 관련)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가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거기서 수반되는 왜곡된 신앙 현상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 받는다'는 신학적 명제를 잘못 받아들여 신자로서의 경건과 성화의 모습을 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의 삶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7] 대표적인 문제가 "율법 폐기론"이 있다.[8]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다 지불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셨으니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이 견해에 찬성하는 아그리콜라는 모세를 교수형에 처할 것을 말하였고, 암스도르프는 "구원에 이롭지 못한 것이 선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 폐기론은 잘못된 입장을 가진 사상이다. 왜냐하면 삶의 도덕적인 준칙이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으로써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9] 율법의 조항들은 그 형태가 바뀌었으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한다. 율법은 모든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있으면서도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10]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율법의 삼중

---

5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s:1734-1738*, ed. M.X. Lesser (Grand Rapids: Yale University Press, 2001), 206.

6 David F. Wells,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4), 95.

7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94), 225.

8 율법폐기론과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워필드가 경고한 반율법주의(Anti-nomism)이다. 이는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므로 인간의 행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흐르는 극단적인 논리이다.

9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430.

10 Herman Bavinck, *Reformation Ethics: Created, Fallen, and Converted Humanity*,

적 용법"을 다루면서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여전히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을 역설한다. 특히 율법의 제3용법은 신자들에게 긍정적인 용법으로 칼빈은 이를 주 안에서 신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권고하는 사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회심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규율과 그분의 의지를 율법을 통해 알아가면서 교만함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나태하지 못하게 견책함이 되어 신앙의 진전을 경험한다.[11] 이런 면에서 율법은 신자들에게는 구약의 지나간 것이거나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참 신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수단이다. 참된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준수할 때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이는 성령을 좇는 신자의 삶과도 일맥상통한다.[12] "율법의 제3용법"을 고려하면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단절되거나 율법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도리어 신자들을 향한 율법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작금의 교회들에게 이러한 율법의 제3용법을 고찰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3)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의 관계

이토록 중요한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한 의미와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음으로 각 항목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본 논문에서 강조점을 찍고자 하는 부분은 이 둘의 "관계"이다. 이 둘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참 신자는 은혜로부터 최종적인 이탈이나 완전한 타락과 멸망이 없다. 이는 신자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있다. 구속 언약적인 면에서 고려하면 영원한 구원협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

ed.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19), 222.

11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Hendrickson, 2008), 2.7.6, 2.7.7, 2.7.12.

12 Hoekema, *Saved by Grace*, 228.

택한 백성들을 성자께 상급으로 붙이셨는데 그 상급은 불안정한 인간에게 달려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 연합되어 언약에 속한 자들은 그분에게서 분리가 불가능하다.[13]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확정적인 것이다.[14] 회심한 신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것은 불변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참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점진적 성화 차원에서 자신 안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경험한다. 바빙크는 그의 저서에서 이것을 병리학적인 측면으로 흥미롭게 접근하는데 그는 거듭난 신자의 영적인 삶에 병리 현상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다룬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영육 간의 전쟁을 지목한다. 아무리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죄[15]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 전쟁은 그가 중생한 참 신자란 뜻이면서도 동시에 신자의 삶 끝까지 행해질 불가피한 싸움이며 그 안의 옛사람과 잔존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16] 이때 신자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17] 영생을 소유한 진실한 신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며 자신이 획득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생긴다. 이러한 경건한 소원함이 없다면 그는 거짓 신자이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은 경건한 소원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영적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존 대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의 싸움 없이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해하는 이들이야 말로 견인 교리를 오해한 예인데,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라고 언급한다.[18] 견인은 성화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자 신자들을

---

13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456.

14 牧田 吉和, "ドルトレヒト信仰規準研究"(神戸: 改革派神学校, 2012), 이종천 역, 『도르트총회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다』(인천: 아벨서원, 2019), 143-144.

15 Bavinck, *Reformation Ethics,* 444-445: "개혁파(The Reformed)는 이런 죄를 고찰함에 있어서 크게 "악의의 죄"와 "연약함의 죄"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악의의 죄란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짓는 죄를 의미하며, 연약함의 죄란 신자들이 짓는 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죄의 형태로 판단되어 질 수 있음에도 불신자의 죄를 악의의 죄라 정의하는 것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영적 생명이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며 그 결과 생명의 결핍과 영적 비참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신자들과 달리 악의의 죄라 정의할 수 있다."

16 Bavinck, *Reformation Ethics,* 436-443.

17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458.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행하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화와 마찬가지로 견인에 있어서도 신자의 임무가 존재함을 언급한다.[19] 견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보존이라고 한다면, 신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인내하는 견딤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의 관계성을 고찰할 수 있다.

2. 기존 연구의 부족함으로 인한 필요성

사실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 각각에 대한 교리적인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정의는 충분히 되어 있고 그 둘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있는 연구 대신 유사한 연구들은 논의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구원의 서정과 관련하여 견인 교리 안에 있는 구원의 점진적 발전성을 지적한 헨첼의 연구가 있다.[20] 이윤석은 견인과 성화의 관계에서 이 둘은 그 대상에서 중생한 자를 공유하며 이것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평생 누리는 지복이 됨을 연구한 바가 있다.[21] 그러나 견인과 성화의 주도권자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할 여지를 열어 신학적 일관성이 흐려지는 한계점을 보인다.[22] 이효선은 견인의 수단에 있어서 "믿음"과 "오직 은혜"등을 지적하나 단순히 증거구절을 나열할 뿐이고 율법의 제3용법과 관련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23] 다시 말해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제대로 연구한 내용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통한 연구와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

18 John. L. Dagg, *Manual of theology* (Philadelphia: Souther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71), 295-296.

19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trans. John Vriend. ed.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11), 584-585.

20 Jan Henžel, "Perseverance within an Ordo Salutis," *Tyndale Bulletin* 60.1 (2009), 150.

21 이윤석, "도르트 신경의 성도의 견인 교리 조항들에 대한 고찰", 「조직신학연구」 제36권(2020), 182.

22 이윤석, "도르트 신경", 188.

23 이효선, "성도의 견인교리의 개혁주의생명신학적 적용 연구", 「생명과 말씀」 제14권(2016), 129-132.

판단된다.

3. 연구의 방향과 한계 설정

본 주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상기하였듯이 이미 각 항목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으므로 교리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모든 정의가 아닌 필수적이고도 선별적인 정의를 하되 특별히 강조해야 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상호 관계성을 조사하고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조사를 토대로 한국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제시할 것이다.

II.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어휘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堅忍)'이란 단어는 굳고 단단하게 하고 변치 않는다는 의미의 '굳을 견(堅)'이란 한자와 참고 질긴 의미를 가진 '참을 인(忍)'이란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견인'의 한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굳게 참고 견딤"이란 뜻을 가진다. 견인을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말에 사용된다. 그러나 한글이나 영어 표현으로써의 '견인'이란 단어는 성경이나 교리적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휘 의미론적인 접근으로부터의 신학적 추론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성경과 주요 신학자들의 신학적 내용으로부터 견인을 이해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1. 성도의 견인의 개략적 개념

(1) 성경구절로부터 추론: 요10:28

성도의 견인의 개념이 나타나는 근거 성경 구절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다. 이 구절에 견인교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견인이 가능한 이유가 제시된다.[24]

헬라어 본문	사역
κἀγὼ δίδωμι αὐτοῖς ζωὴν αἰώνιον καὶ οὐ μὴ ἀπόλωνται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καὶ οὐχ ἁρπάσει τις αὐτὰ ἐκ τῆς χειρός μου. (Jn. 10:28 BGT)	그리고 내가 저들(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들이 결단코 절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이가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의 손에서부터

위 본문은 예수께서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실 때 예수께 접근하여 말씀을 요구하는 불특정 유대인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다(요10:22-24). 돈 카슨은 요한복음 10장을 주석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한다. 동시에 이 구절에서 예정론적인 뉘앙스를 찾아 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예수는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ζωὴν αἰώνιον)"[25]을 주시는데 이 주심은 결과론적으로 그들에게는 결단코 "영원히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귀결된다. 만약 구원하기로 작정한 양을 한 마리라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등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9)"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의 실패를 의미한다. 예수의 자기 칭호처럼 그분은 "선한 목자(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이며 만물보다 크신 성부와 신적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계획에는 결코 좌절함이 있을 수 없다(요10:11,29,30).[26] 이 본문의 강조점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양 한 마리도

24 Wayne Grudem, *Bible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9), 337.

25 Thomas R. Schreiner, *New testament Theology: Magnifying God in Christ* (Grand Rapids: Baker, 2008), 84-87: "영생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의 주요한 주제이다. 요한복음 안에서 생명은 오는 시대에 속한 것이면서도 요한은 현재적인 의미에 강조점을 둔다. 생명을 이원론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대립적인 영적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없음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시대의 생명이 현재의 시공간으로 침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현재적 선물). 성부께서 성자이신 예수께 맡긴 자들이자 이끈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얻고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주와 더불어 향유하게 될 것이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예수의 능력이다. 여기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로서 "어떤 이(τις)"라는 정확한 실체를 밝히지 않는 부정대명사가 실사적으로(substantivally) 쓰인다. 빼앗는 어떤 이는 외적인 모든 요소들은 물론이고 예수의 손 안에 있는 양으로 지칭되는 신자 자신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은 "결코 아니(οὐ μὴ)"라는 강한 이중 부정[27]표현이다. 이것은 예수의 신자로써 양은 영생이 주어진 자들로 이들이 어떤 이유나 상대에 의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로부터 떨어지거나 구원에서 낙오하는 일이 결단코 없음을 매우 강조하는 말이다.[28]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충분히 유추하고 그 개념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

성도의 견인은 사변적으로 유추하여 도출한 교리가 아닌 분명히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성도의 견인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자 신적 사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29]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성도의 견인이 가르쳐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신자들은 그를 이끄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보호되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며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있다.[30] 성도의 견인을 이끄는 주도권자로써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그 어떤 대단한 권세나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롬 8:38-39).

---

26 D.A. Cars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 (Grand Rapids: APOLLOS, 1991), 393.

27 William D. Mounce,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19), 362: "οὐ is mainly used when negating a verb and μὴ is generally used in negating a subjunctive. However, when these two words are combined, they don't have a different nuance, but rather have a very strong or powerful negative meaning. The combination of οὐ μὴ can be found in the aorist subjunctive in New Testament."

28 Grudem, *Bible Doctrine*, 583.

29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9), 546.

30 Edwin H. Palmer,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1972), 82-83.

(2) 성도의 견인 개념의 기원: 아우구스티누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 "칼빈주의의 5대 교리"로 알려진 TULIP(튤립)[31]의 마지막 'P'를 뜻하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에서 나온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러나 견인 교리는 칼빈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견인 교리의 시초는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정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로마서 8장 29-30절을 가지고 "예정된 자 중에는... 마귀와 함께 멸망에 떨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신학적 주장을 한다. 견인은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32] 반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견인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는 인간 입장에서는 불가해한 신비임을 고백한다.[33] 질송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은총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오히려 은총은 그것을 받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중적인 힘을 수여한다.[34]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한 은총은 불가항력적이고 결정적이므로 그들의 의지와 연약함 때문에 견인으로부터의 떨어질 수 없다.[35] 그러나 그의 신학적 설명에는 한계도 존재했다. 바빙크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과 견인"을 분리시키려 한다.[36] 일례로 진정한 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길에서 낙오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다시 회심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한다.[37] 박형룡은

---

31 Justo L.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2 (Grand Rapids: HarperOne, 2010), 231-233: "Total depravity(全的 墮落), Unconditional election(無條件的 選擇), Limited atonement(制限 贖罪), Irresistible grace(不可抗力的 恩惠), Perseverance of the saints (聖徒의 堅忍) 이 다섯 교리가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아르미니우스파로 알려진 抗辯派 (Remonstrants)와 맞서 승인된 것이고 정통 칼빈주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교리(教理)가 되었다."

32 Aurelius Augustinus, *De Dono Perseverantiae*, CR 9.21.

33 Aurelius Augustinus, *De Correptione et Gratia*, CR 8.17: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Cur non electis perseverantia non datur?*"라는 물음에 "*me ignorare respondeo*"라는 대답으로 예정과 견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지혜와 능력에 경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34 Étienne Gilson, *Introduction à l'étude de saint Augustin* (Paris: J. Vrin, 1943), 208.

35 韓哲河, 『古代基督教思想』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95), 300.

36 Aurelius Augustinus, *De Correptione et Gratia*, CR 6.10.

37 Bavinck, *Reformation Ethics,* 363-364.

그의 저서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성도의 견인 교리를 고찰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견인 교리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해설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 애매함이 있음을 그 한계점으로 지적한다.[38] 벌코프 역시 견인 교리의 시초를 아우구스티누스로 지목하면서도 "선택받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으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은혜로부터 멀어져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신학적 모순점과 한계(아우구스티누스가 예정론을 말하면서도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39] 견인 교리를 최초로 교훈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견인이라고 하는 선물을 회심자 전반이 아닌 소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허락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는 자에게서 "위로라는 측면"을 박탈한다고 바빙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예리하게 비판한다.[40]

(3) 성도의 견인의 조직신학적 통념적 개념 정의

조직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가 최후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련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함을 말하는 교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을 받고 회개하여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신자가 된다. 이어서 그가 점진적 성화의 측면에서 죄의 길로 되돌아가거나 최종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마지막까지 참 신자로 남고 신자의 생활을 지속함으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는 의미다.[41] "일단 구원받았으면 늘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늘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니 한번 믿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으며 결코 낙오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완주할 수 있으니 신자들은 항상 보존될 것이다.[42] 이것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적 개념이다.

---

38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446.
39 Berkhof, *Systematic Theology*, 545.
40 Bavinck, *Reformation Ethics,* 364.
41 이범배, 『조직신학』(서울: 새한기획출판부, 2001), 701-702.
42 Palmer,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1972), 81.

2. 성도의 견인의 균형 잡기와 두 가지 측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늘 환영받고 모두가 인정하는 교리는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게 추가 기울어지기도 하였다. 로마 가톨릭은 타락 후에도 인간의 자연적 의와 자유선택 의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신뢰한다. 이런 낙관론적인 인간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가톨릭 신학은 반-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43] 그 결과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고 구원의 성사에 있어서 신인 협력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인간의 불확실한 협력 여부에 따라 견인의 은혜를 획득할 수도 혹은 상실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44]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견인은 순종과 의지, 선행 여부에 달린 것이므로 확실한 것이 아니다.[45] 로마 가톨릭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성도의 견인의 균형을 인간에게로 너무 당겨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루터는 베드로후서를 설교하면서 향후에 믿음의 실패가 아닌 확신을 획득하기 위해 믿음의 실천과 적용 부분을 살필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46] 현재 믿음을 확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조심해야 함은 장차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바빙크는 루터에게 있어서 칭의와 믿음은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며 견인 교리를 모호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다.[47] 루터 역시 성도의 견인의 균형을 인간에게로 당겨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견인 교리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큰 반면에 견인의 삶을 간과하는 면도 존재한다. 이를 "영원한 안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성도의 안전을 신자의 신앙적 결심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비록 성화나 인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여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불

---

43 박재은,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6-44.
44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Zondervan, 2011), 684-685.
45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447.
46 Martin Luther, *Luther's Works(Vol.30): The Catholic Epistles*. trans. Martin H. Bertram&Walter A. Hansen (Missouri: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7), 159.
47 Bavinck, *Reformation Ethics,* 368.

가운데서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임을 단언한다. 이 입장은 성도의 견인을 신자의 신앙을 가지기로 하는 자발적 결심에서 찾으므로 기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점점 가까워지는 "신앙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48]

스프로울은 성도의 견인을 소개하면서 성도의 역할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우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견인이란 말보다는 "보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49] 그러나 견인을 하나님의 보존하심에만 의존하고 영원히 안전하다는 개념을 잘못 왜곡할 때 오해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루뎀은 견인 교리를 실천적이고도 목회적인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식의 견인에 대한 가르침과 오해는 성도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질 위험이 있다.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였는데 현재의 삶이 어떻고 혹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장차 천국에 무조건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속임 당할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50] 이와 비슷한 이유로 존 머레이는 "보존"보다는 "견인"을 강하게 고집한다. 존 머레이는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경계하며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임을 지적한다.[51] 신자들의 영적 방종과 방관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다.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신자들이 그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나아가서 후크마는 용어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명칭을 넘어서서 "참 신자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52] 이는 견인 교리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용어적인 면에서 노력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

48 Michael Horton, *The Christian Faith*, 685-686.
49 R.C Sproul, *Grace Unknown: the heart of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197.
50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20), 993.
51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163.
52 Hoekema, *Save by Grace*, 236.

고 은혜의 소산이다. 그래서 견인의 성패가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성도의 견인은 때론 하나님의 섭리와 비견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만 하시고 피조물들에 무관심하시거나 알아서 운영되도록 방관하신다는 생각은 이신론적인 사고이고 성경에서 나온 사고가 아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 있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53] 그래서 견인의 일차적 원인은 하나님이며 그분의 예정하심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견인에 대한 오해를 피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도르트 신조를 통하여 견인의 두 가지 면을 모두 바라봐야 한다. 첫째, 견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하기로 선택한 신자들을 향한 그분의 보존하심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보존"이라고 하는 표현이 옳다. 둘째로, 다른 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이다.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54] 신자들에게 협착한 길이라는 불가피한 신앙의 여정 끝에 마침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인내하기를 중단하거나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참 신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55]

Ⅲ.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하여

1. 성경구절로부터 추론: 마5:17

---

53 Palmer,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82.
54 Hoekema, *Save by Grace*, 235-236.
55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s:1734-1738*, 602.

헬라어 본문	사역
Μὴ νομίσητε ὅτι ἦλθον καταλῦσαι τὸν νόμον ἢ τοὺς προφήτας οὐκ ἦλθον καταλῦσαι ἀλλὰ πληρῶσαι. (Matt. 5:17 BGT)	너희는 내가 선지자들 혹은 율법을 폐하러 임한 것이라 간주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폐하러 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다

본문이 속한 단락(마5:17-20)은 예수 자신과 선지자들, 구약 율법의 관계성을 보여 준다. 이 관계성은 마태복음 신학의 핵심 주제들 중 하나다.[56] 여기서 "선지자들 혹은 율법(τὸν νόμον ἢ τοὺς προφήτας)"은 복음서 전체를 고려해 볼 때 "구약성경"을 지칭한다. "폐하러(καταλῦσαι)"라고 하는 부정사 단어는 본래는 어떤 것을 해체하고 파괴하는데 쓰이는 단어로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폐지하고 무효화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마도 외적으로 보이는 예수의 행적들은 율법에 자유롭고 그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 나아가서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 될 여지도 있었다.[57] 그러나 사실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신적인 의도와 목적을 제시하였다.[58] 예수의 행적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바들을 이루고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였다.[59]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중에 율법에 합당한 명예회복의 당위성을 언급한다. 예수는 고난이라는 부정적 방법과 순종이라는 긍정적 방법으로 율법의 명예를 회복하였다. 예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둘째 아담으로서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법에 합당한 명예를 세우는 순종을 이루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셨다.[60] 예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결코 대립적이거나 부족함을 보이지 않고 도리

56 David L. Turner, *Matthew*,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161-162.
57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181-182.
58 Turner, *Matthew*, 162.
59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182-183.
60 강웅산,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경기: 도서출판 목양, 2017), 155-161.

어 율법에 대한 순종과 온전한 성취를 보이셨다. 이는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의를 전가 받은 의의 전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예수는 결코 신자와 율법 사이를 적대적 관계로 묘사하거나 신율주의적인 모습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에게 속한 신자들은 구약 이스라엘 및 율법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공유한다는 주제를 얻을 수 있다. 이 주제는 복음서 전체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다.[61]

2. 율법과 신자의 상관관계

(1) 오늘날 신자들이 암묵적으로 가진 율법에 대한 오해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후에는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생각하며 더 이상 신약시대의 교회는 율법과 별로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62]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류다. 이 생각의 근저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신칭의를 율법을 포함한 인간 행위나 공로에 반하여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여 율법을 일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선입관이 작용한 면이 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로 촉발된 문제였던 것 같으나 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칭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정조준 한 것이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는 공적이 포함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의식에 혼란과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었다. 루터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혹은 면죄부를 사기 위한 재물도 아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였다. 루터가 외친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의의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시대적 배경 상 당시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 준 동아줄과 같았다. 오늘날 신자들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가 외친 이신칭의 복음을 생각할

61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177-178.
62 Hoekema, *Save by Grace*, 225.

때 이것이 일반적인 신학 사상이라기보다는 당시로서는 "삶과 죽음에 직결된 혁명적 교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63] 그래서 루터의 이신칭의가 율법적 행위로부터의 자유만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면 역사적 이해를 무시한 오해다. 더욱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신칭의 복음만이 아니라 루터가 가진 율법 이해를 시작으로 오늘날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고찰함이 합당하다.

(2) 루터와 멜랑흐톤의 율법 이해

종교개혁자 루터의 율법 이해는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첨예하게 분리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율법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약속을 찾을 수 없고 거기서는 다만 회개만 이끌어 낸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는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을 얻으나 은혜와 믿음의 약속으로부터는 평안의 기쁨과 동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64] 루터에게 율법이란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야 할 의무들을 제시할 뿐 거기에는 은혜의 약속은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이끌어 낸다.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도리어 방해만 된다.[65]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결과 자신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율법의 "신학적 용법"만 루터는 인정한다.[66] 여기서 미루어 보면 루터는 율법의 거룩함과 영적이고 신적인 가치는 인정하나 율법의 신자들을 향한 규범적 용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루터에게 있어서 신자의 삶의 용도로써 율법을 사용함은 설자리가 없다. 이는 루터가 가진 강한 신념, 즉 율법과 그리스도는 대등하게 취할 수 없다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67] 그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를 멜랑흐톤의 표현을 빌리면

---

63 김용주, 『칭의, 루터에게 묻다』(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17), 30-31.
64 Martin Luther, *Luther's Primary Works*, trans. Henry Wace & C. A. Buchheim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96), 278-279.
65 Martin Luther, *De Liberate Christiana*, trans. Tryntje Helfferich ed. Tryntje Helfferich (Cambridge: Hackett, 2013), 26.
66 Martin Luther, *De Liberate Christiana*, 23-24.
67 Martin Luther, *a commentary upon the Galatians*, trans. Henry Wace & C. A. Buchheim (Philadelphia: Aitken, 1801), 155-161.

"율법은 항상 정죄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68]

루터의 동역자 멜랑흐톤은 율법을 다룸에 있어서 절망적인 죄인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언급한다. 동시에 율법이 가진 유익함을 논하며 율법의 삼중적 용법에 대해 다룬다. 그는 먼저 외적인 강제를 수단으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자(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는 율법의 제1용법과 제2용법을 해설한다. 거기에다 더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위한 용법인 율법의 제3용법으로 발전되는 전개를 보여준다.[69] 이런 면에서 루터와 멜랑흐톤은 율법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식의 상이함을 보인다.

칼빈주의자들은 루터와 같이 "오직 믿음"에 동의하고 이를 강조하나 율법을 적대시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기능을 간과하지 않고 신자의 삶과 율법을 대립적인 것으로 결코 해석하지 않는다.[70]

(3) 율법과 신자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나 역설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71]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 의를 신자가 받아 누린다는 이유로 율법과 신자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신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하다.[72]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듯 이신칭의로 인하여 율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롬 3:31). 신자들은 이제는

---

68 Philip Melanchthon, *Loci Praecupui Theologici* (Lipsiensem: Berolini, 1856), 67.
69 Philip Melanchthon, *Melanchthon on Christian Doctrine Loci communes 1555*, trans. Clyde L. Manschrec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5), 127.
70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438.
71 Hoekema, *Save by Grace*, 226.
72 Philip Melanchthon, *Loci Praecupui Theologici*, 49: "멜랑흐톤은 "*Quatenus autem renati et justificati fide sint liberi a lege*(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표현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강제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는다. 반면에 성경 어디에서도 신자들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간과나 경멸을 지지하지 않는다.[73] 바빙크는 구약의 율법과 신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약의 율법은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세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τέλος νόμου)이 되시니라"라고 말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신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율법은 영적이고 불변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전인을 다스리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74] 즉 율법은 신자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불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구원받은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닌 도리어 시작이다. 신자는 자신의 전 삶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전이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이 성화의 삶을 사는 참 신자에게 가진 기능을 고찰할 때 악을 억제하고 죄와 심판을 인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이끄는 "삶의 준칙"으로써 가르침의 역할이 신자들에게 분명히 남아있다.[75]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3. 율법의 제3용법의 위치와 역할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세 가지 형태의 율법 효과에 대해 다루면서 율법의 삼중적 용법[76]을 제시한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제3용법"이 위치한다. 율법의

---

73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907-908.

74 Bavinck, *Reformation Ethics,* 216.

75 Bavinck, *Reformation Ethics,* 216.

76 *Inst.* 2.7.1,6,7,10,11,12,13: "칼빈은 율법에 대한 입장을 다루면서 인간의 능력과 특성상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음을 전제하고 고찰한다. 율법의 삼중적 용법 가운데 제1용법은 율법의 비난하고 정죄하는 기능이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모든 교만을 버린다. 제2용법은 율법의 형벌적 모습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악해지고자 함을 억제하는 용법이다.

제3용법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적 기능으로써의 율법 용법을 제시한다.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냄"의 맥락에서 바라본다.[77] 율법으로부터 책망과 저주와 칭의를 위한 행위가 걷혀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신자들에게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율법의 제1, 2용법이 불신자들을 위한 주된 용법인데 반해 제3용법은 중생한 자들을 위한 주된 용법이다.[78] 율법의 제3용법은 크게 "가르치는 사역"과 "권고하는 사역"으로 나뉜다. "가르치는 사역"이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율법의 특징이 바탕 된 것으로 신자들에게 "주의 의지"를 규율을 통해 알아가고 적응해나감으로 날마다 신앙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사역을 말한다. 칼빈이 더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권고하는 사역"이다. 이는 의지적 차원에서 성도들이 묵상하고 순종하여 배도에서 벗어나 굳건히 서게 하는 사역을 말한다.[79] 죄를 알게 하는 거울로써 율법의 제1용법이나,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율법의 제2용법 모두 신자와 불신자에게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율법의 제3용법은 오직 거듭난 참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복음에 불복하는 불신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바빙크의 경우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다루면서 "①시민적 용도, ②교수법식 혹은 유죄평결 용도, ③신자들 가운데 가르치는 용도"등 율법의 세 가지 구별되는 용도를 칼빈과 유사하게 설명하기도 한다. 첫 번째 용도로써 "시민적 용도"란 인간을 외적으로 제어하여 발광하는 열망을 잠재우고 억제하는 용도다. 물론 율법에 대한 영적 순종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외면적으로나마 순종의 행위를 이끌어 낸다. 그러다 보니 자만과 율법적 공로라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 용도에서 율법은 인간에게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알려준

비록 마음을 다해 따라가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평안과 유지를 위해서 몽학선생처럼 필요하다. 교육적 기능과 훈계적 기능으로써 율법의 제3용법을 말하면서 칼빈은 성급하게 모세의 율법을 등한시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미숙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본다. 바로 여기에서 칼빈을 통한 율법의 세 가지 용법(the threefold office and use of the moral Law)에 대해 발견하여 알 수 있다."

77 *Inst.* 2.7.6.

78 유창형, 『죤 칼빈의 성화론』(경기: 도서출판 목양, 2009), 130-131.

79 *Inst.* 2.7.13.

다. 그러나 이 용도는 율법을 통해 인간에게 가르침을 주는 면모는 있으나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성취할 수 없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리고 그저 인간에게 "요구"라고 하는 부담만 집요하게 지워줄 뿐이고 그 어떤 유익한 삶이나 능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번째 용도에는 인간에게 절망을 준다는 폐해도 있으나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순기능적인 면모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용도이다. 바빙크 역시 칼빈의 율법의 제3용법과 유사하게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용도를 설명한다. 세 번째 용도는 신자들 간의 것이며 도덕적인 모든 방향과 교훈을 제공한다. 여기서 율법은 신자들의 영적인 삶에서 영속적인 규칙으로 신자와 연관성을 맺는다.[80] 바빙크가 윤리학적으로 제시한 율법의 세 가지의 율법의 용도는 칼빈의 율법의 삼중적 용법과 비교하였을 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나 유사한 면이 많다. 특히 율법의 제3용법에 있어서 칼빈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신자와 율법, 특별히 율법의 제3용법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구원받은 신자이며 그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운 신자라 할지라도 율법과 관계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도리어 선한 기능면에서 관계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신자들에게 선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전 주제였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 관계성을 논할 수 있다.

Ⅳ.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 관계 설정하기

살펴보았듯이 성도의 견인은 허황된 산물이 아닌 분명히 정통 신앙에서 부정할 수 없는 참된 교리다.[81] 또한 율법과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 살피면서 그것이

---

80 Bavinck, *Reformation Ethics, 226-228.*

81 Bavinck,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584-585: "이를 부정한다면 신학적으로 혹은 목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성경에서 참 신자의 배교와 신앙의 길에서의 낙오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다(딤전 4:1, 히 6:4-8, 벧후 2:1, 18-22). 그러나 이를 보고 성도의 견인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탈락한 이들이 참 거듭난 신자이고 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인지 명료하게까지 알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결과는 반드시 수단의 무효성과 연결되지

신자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서 둘 사이가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며 논하고자 한다.

1. 공유적인 관계

(1) 주도권자를 공유함: 영원하신 하나님

성도의 견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견인은 "하나님의 은혜(혹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이를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성경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은혜 언약은 분명 그 안에 행해야 할 의무적인 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순종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그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불성실에 의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시거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증거한다. 물론 이스라엘 혈통이라도 모두가 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율법)을 새겨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부르신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영생은 결코 사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말할 수 없도록 크시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뜨거워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작정과 연결되어 있다. 배교자들 혹은 구원에서 낙오한 자들은 견인교리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약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교와 낙오는 참 신앙 가운데 속하였다가 떨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한다."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82] 칼빈은 하나님의 성령이 신자들을 도우시고 참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향을 발생시켜 끝까지 견디도록 지속력을 허락하므로 견인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선물(은혜)이라고 주장한다.[83] 견인의 진정한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달린 일이다. 그러므로 견인의 주도권에 있어서 신자는 아무런 할 말이나 내세울 공로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된 신자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선물을 하사하시고 부요하게 하신다. "ὅστις γὰρ ἔχει, δοθήσεται αὐτῷ καὶ περισσευθήσεται!"[84]

율법의 주도권자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 언약에서 나타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도덕적 성품을 반영한다.[85]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86] 찰스 핫지는 율법을 "하나님의 의지의 드러남"으로 표현하고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87] 바빙크는 율법이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주장한다. 더불어서 "나는 여호와니라(אֲנִי יְהוָה)"가 전제하는 것은 율법을 선언하는 주체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한다.[88] 게르할더스 보스는 특별계시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신정정치사에 위치한 율법을 설명한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이며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다.[89] 스프로울 역시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것이고 그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을 주도권자로 보며 순종해야 함을 언급한다.[90] 성도의 견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제3용법의 진정한

82 Bavinck,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585-586.
83 *Inst.* 2.3.10,11
84 *Inst.* 2.3.9,10,11
85 Bruce K. Waltke, *A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07), 436.
86 *Inst.* 2.7.6.
87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London&NewYork: T. Nelson, C. Scribner, 1871), 262-265.
88 Bavinck, *Reformation Ethics,* 219.
89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125.
90 R.C Sproul, *What is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Bakerbooks, 1997), 120-121.

출처이자 주도권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은 함께 주도권자를 공유하는 공유적 관계라 할 수 있다.

(2) 대상을 공유함: 믿음 안의 참 신자

성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음을 경고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닌 오직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참 신자였다(롬 9:6). 신약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이 교회 인원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쭉정이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항상 있었다.[91] 겉보기에 인정할 만한 신자의 모습을 하더라도 참 회심을 한 적이 없고 그 속에는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확신자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92] 견인 교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면이 있으나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신앙 공동체 내에 속하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그분의 참된 말씀에 끈질기게 거하는 자만이 택한 백성이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가 참 믿음을 가진 신자이다. 믿은 후에는 열매 맺지 않아도 상관없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삶을 살든 괜찮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이다.

지금까지 다룬 것처럼 분명히 참 견인은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면이 있다. 견인을 오해하는 이들은 칼빈주의의 견인 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킨다. 마치 극단적 칼빈주의나 정적주의[93]처럼 과도하게 수동적으로 되거나 자신의 삶이나 열매와 상관없이 구원이 확정적이라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견디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하는 말은 참된 견인 교리가 아니다. 성도의 견인

---

91 Hoekema, *Save by Grace*, 248.

92 Wayne Grudem, *Bible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9), 341.

93 Bavinck, *Reformation Ethics,* 431: "바빙크는 영적인 삶의 병리를 다루면서 정적주의(quietism)에 대해 설명한다. 정적주의란 결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영혼의 지극히 수동적인 상태에서 은혜의 수단들도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향을 그저 기다리는 형태이다."

교리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견디고 열매 맺는 신자만이 참 신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94]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그 대상은 불특정한 "모든 사람"이 아니다. 단순히 신자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도 않으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디고 고군분투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겉치레 성도"도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의 대상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예정된 자이며 참 회심의 증거가 있는 참 거듭난 사람이다. 한마디로 "참 성도"가 견인의 대상이다.

율법의 제3용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칼빈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제3용법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들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다.[95] 그러므로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신자들을 위한 용법"이라 했는데 이는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과 달리 제3용법만이 참 신자들을 위한 용법이기 때문이다.[96] 진정한 신자의 삶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순종을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삶이다. 율법을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나 율법주의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은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율법의 제3용법에서 신자들에게 율법이란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족쇄나 구원에 거치는 것이 아니다. 참 신자라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의 선한 결과로 율법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추가적으로 율법에 기꺼이 복종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로서 참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97] 그리스도 안에서 Human Agency로서의 모든 자발적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이며, 중생과 구속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가능하다.[98] 그러므로 율법에 참으로 복종하되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로 복종하며 견인(혹은 인내)하는 이들 만이 참 신자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성도의 견인 교리와 율법의 제3용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

94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163-165.
95 *Inst.* 2.7.13.
96 *Inst.* 2.7.12.
97 Hoekema, *Save by Grace*, 228.
98 Daniel J. Kim, "Somatic-Kinetic Model of Human Agency an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s", *ACTS Theological Journal* 37권 (2018년 10월), 222.

"참 신자"라고 하는 대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은 유사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호보완적 관계: 견인 혹은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단회적이고 최종적인 칭의의 믿음을 소유한 신자라면 반드시 견인하고, 구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견인이라 한다.[99] 또한 성도의 견인을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견인은 마치 역동적인 생명이 있는 생물처럼 결코 자신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견인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 있음 그 자체이다. 그래서 넋 놓고 있거나 영적인 삶을 잠시 묻어두는 삶은 견인이 아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며 예정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견인 한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회심하지 못하듯이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견인할 수 없고 견인할 수 없는 자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100]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생애 걸쳐 믿음의 길에서 견인 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참 신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동반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διὰ πίστεως)"라는 표현이다.[101] 견인은 단순히 신자가 안전을 빌미로 나태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견인에서의 영원한 안전은 신자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면을 고려하게 한다. 바른 성도의 견인을 논할 때는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는 측면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존과 위로만을 논할 수 없다.[102] 신자는 참으로 거듭나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는 거듭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전쟁이다.[103]

---

99 Jonathan Edwards, *Sermons and Discourses:1734-1738*, 206.

100 강웅산,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 338-346.

101 Wayne A. Grudem, *1PETER*, TNTC (Grand Rapids: IVP, 2007), 58-59: "그루뎀은 벧전 1:5를 주석하면서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된 신자들의 안전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Power)에 초점을 맞춘다. 신자들의 미래의 영원한 안전과 최종적인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신자들의 믿음(faith)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이야 말로 최종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해설한다."

102 Hoekema, *Save by Grace*, 243-244.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 영적 전쟁으로써 믿음과 성화의 지속이라고 한다면 성화와 구분되나 유사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결정적인 성화"가 있으면서 인간의 역할과 노력이 있는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104] 마치 견인이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 보존의 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견인하는 신자 편에서는 완전히 미끄러져 타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여기서 신자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성화의 점진적인 측면과 매우 닮아 있다. 이로 보건대 점진적 성화에서 성화의 방편 중 하나로 "말씀(율법)"이 내세워지듯이 신자의 입장에서 믿음의 길에서 견인할 때에 가치 있는 방편으로 율법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과 달리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율법)을 성령의 수단이자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105] 비견한 예로 바빙크 역시 확신의 수단으로 "말씀"을 내세운다.[106] 여기서 율법의 삼중적 용법 가운데 율법의 제3용법을 다시 상기시켜 볼 수 있다. 율법의 제3용법에서 율법은 신자를 향해 게으르고 무기력함을 자극하는 "채찍"과도 같고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라도 육체적인 것들로부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단히 찔러 부지런하게 다그치는 "가시"로써의 역할도 감당한다.[107] 이런 율법의 제3용법 용도는 믿음으로 견인하고 있는 참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신자는 은혜로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인내하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신다.[108] 즉 율법의 제3용법은 신자로 하여금 교육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의 역할을 함으로 견인을 돕는 성령의 수단이자 은혜의 수단, 믿음의 수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은 서로 간에 관계성을 가진다. 견인은 율법의 제3용법을 은혜의 방편으로 활용하되 율법의 제3용법은 견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은 서로 상호보완적이

---

103 Bavinck, *Reformation Ethics,* 442.
104 박재은,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 128.
105 朴亨龍, 『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402-403.
106 Bavinck, *Reformation Ethics,* 398.
107 *Inst.* 2.7.12.
108 *Inst.* 2.7.11.

고 함께 가는 동역자와 같은 사이로 둘의 관계성에 대한 결론지을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성도의 견인과 율법의 제3용법을 다루면서 각 신학적 의미와 더불어 둘 사이에 관계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느 신학자들의 말처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교리이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스프로울은 하나님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견인을 보존이라 부르기를 선호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 것을 말하는 면이 있으므로 스프로울이 선호하는 명칭에 신앙적 맹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견인 교리에서 위로라는 부분만 강조하면 신앙의 불균형과 거짓 확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만함을 경계하기 위해 성도의 인내를 강조했던 존 머레이의 견인에 대한 견해에는 논리적 허점이 존재한다. 그의 염려는 자칫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주권을 약화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바울의 경고처럼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면서도 매일 죄와 영적 싸움에서의 나태함을 경계해야 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견인하는 자만이 참 신자이기 때문이다.[109]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견인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왔으니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 맺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또한 시작하신 이가 신자를 통해 견인이 완수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루실 것이다.[110] 견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을 결코 누락시킬 수 없다. 그러면 신자는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이자 숙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분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 특별히 다룬 율법의 제3용법

109 Hoekema, *Save by Grace*, 255-256.
110 Bavinck,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584.

을 견인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신자에게 정죄하던 율법이 거듭난 후로는 감사함으로 거기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 거함이 신자의 즐거움이 된다. 때로는 좌절해도 죄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일어나 견인할 수 있음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다시 균형 잡힌 견인 교리를 회복해야 한다. 복음과 더불어 감사로써 율법에 대해 바르게 설교돼야 한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바른 교리와 말씀 전파로부터 참된 기쁨과 꿀 송이를 찾을 때에 진정으로 교회의 신앙과 신자들의 삶에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고 제2의 부흥의 계절이 돌아올 것이라 전망한다.

[참고문헌]

Augustinus, Aurelius. *De Dono Perseverantiae*, CR 9.21.

_____. *De Correptione et Gratia*, CR 6.10, 8.17.

Bavinck, Herman. *Reformation Ethics: Created, Fallen, and Converted Humanity*, edited by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19.

_____. Herman. *Reformed Dogmatics: Abridged in one volume*, translated by John Vriend. edited by John Bolt. Grand Rapids: Baker, 2011.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9.

Carson, D.A.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 Grand Rapids: APOLLOS, 1991.

Calvin, Joh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Hendrickson. 2008.

Dagg, John. L. *Manual of theology*. Philadelphia: Souther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71.

Edwards, Jonathan. *Sermons and Discourses:1734-1738*, edited by M.X. Lesser. Grand Rapids: Yale University Press, 2001.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19.

Gilson, Étienne. *Introduction à l'étude de saint Augustin.* Paris: J. Vrin, 1943.

Gonza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2 Grand Rapids: HarperOne, 2010.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20.

_____. *Bible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9.

_____. *1PETER* TNTC. Grand Rapids: IVP, 2007.

Henžel, Jan. "Perseverance within an Ordo Salutis." *Tyndale Bulletin* 60.1 (2009), 150.

Heschel, Abraham J. God in search of man: a philosophy of Judaism. New York: Farrar, Straus&Chdahy, 1955.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London&NewYork: T. Nelson, C.

Scribner, 1871.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Grand Rapids: Eerdmans, 1994.

Horton, Michael.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Zondervan, 2011.

Kim, Daniel J. "Somatic-Kinetic Model of Human Agency an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s." *ACTS Theological Journal* 37권 (2018년 10월), 222.

Luther, Martin. *Luther's Primary Works*, translated by Henry Wace & C. A. Buchheim.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96.

_____. *De Liberate Christiana*, translated and edited by Tryntje Helfferich. Cambridge: Hackett, 2013.

_____. *a commentary upon the Galatians*, translated by Henry Wace & C. A. Buchheim. Philadelphia: Aitken, 1801.

_____. *Luther's Works(Vol.30): The Catholic Epistles.* translated by Martin H. Bertram & Walter A. Hansen. Missouri: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7.

Melanchthon, Philip. *Loci Praecupui Theologici.* Lipsiensem: Berolini, 1856.

_____. *Melanchthon on Christian Doctrine Loci communes 1555.* translated by Clyde L. Manschrec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5.

Mounce, William D.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19.

Murray, John.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55.

Palmer, Edwin H.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Grand Rapids: Baker, 1972.

Sproul, R.C. *Grace Unknown: the heart of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7.

_____. *What is Reformed Theology?.* Grand Rapids: Bakerbooks, 1997.

Schreiner, Thomas R. *New testament Theology: Magnifying God in Christ.* Grand Rapids: Baker, 2008.

Turner, David L. *Matthew* BECNT, 2014.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Waltke, Bruce K. *A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2007.

Wells, David F.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4.

牧田 吉和 . “ドルトレヒト信仰規準研究”. 이종천 역.『도르트총회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다』. 인천: 아벨서원, 2019.

강웅산.『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 경기: 도서출판 목양, 2017.

김용주.『칭의, 루터에게 묻다』.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17.

박재은.『성화, 균형있게 이해하기』.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7.

朴亨龍.『朴亨龍博士著作全集(救援論)』. vol. 5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1.

유창형.『죤 칼빈의 성화론』. 경기: 도서출판 목양, 2009.

이범배.『조직신학』. 서울: 새한기획출판부, 2001.

이윤석. “도르트 신경의 성도의 견인 교리 조항들에 대한 고찰.”「조직신학연구」36 (2020), 182.

이효선. “성도의 견인교리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적 적용 연구.”「생명과 말씀」14 (2016), 129-132.

韓哲河.『古代基督教思想』.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everance and the Third Use of the Law

Byung Hoon Hwang
(Lamp Church, Pastor, New Testament theology)

This paper was started to restore and keep the sound faith of the Korean church. There are two major things that can be misunderstood in an individual's religious life. The first thing is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the second is the third use of the law. It is essential to remind believers 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and the third use of the law for the correct life of faith. Also,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and the third use of the law will be established. Are these two things unrelated? Or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them? Many of Studies related to theological terms have already been existed. There have been many such studies both doctrinal and church history.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ings. For this reason,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essential and valuable.

In this paper, after dealing with the essential definition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large thing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ach claus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largely shared and complementary. This is because only true believer who is in the faith are involved, all of which are led by God. And it is carried out by means of the word of God(Law).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cannot be regarded as an antagonistic or completely unrelated relationship.

Key Words: Perseverance of the saints, Third use of Law, a shared relationship,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 true believer, Church and Faith